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 치료를 수행할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국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기관승인

희귀 림프종 환자의 새로운 희망이 되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강원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기관으로 최종 승인을 획득, 그간 임상연구 단계에 머물렀던 첨단 세포 치료를 실제 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선구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3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완전관해 환자 대상 치료계획’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적합 의결했다. 이는 병원의 탁월한 연구 역량과 임상 능력,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적극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희귀림프종환자,자가면역T세포로재발위험억제

승인된 치료 대상 질환은 ‘EBV 양성 림프절외 NK/T세포 림프종(Extranodal NK/T-cell Lymphoma: Epstein-Barr 바이러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우 공격적인 희귀 림프종)’이다. 이 질환은 초기 치료 후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 현재 검사로 확인 가능한 암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 도달하더라도 재발률이 매우 높고, 재발 시 사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해 예후가 극히 불량하다.

여의도성모병원이 선보일 첨단 치료법은 표준치료를 마친 완전관해 상태의 고위험 환자에게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추출해 배양한 ‘EBV 항원 특이 면역세포(T세포)’를 투여하는 방식이다. 이 T세포는 림프종 세포 표면에 발현된 EBV 항원을 정밀 타격해, 몸속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세한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을 억제함으로써 장기 무병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년간의장기임상시험근거, ‘규제샌드박스’로현장적용앞당겨

이번 국내 최초 1호 승인은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한 제2상 임상연구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병원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확보한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법 시행(2025년 2월) 이후 실제 치료 계획 심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했다.

실시 책임자인 혈액내과 전영우 교수 리드 하에 치료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었다. 해당 치료가 신 의료기술 평가나 품목허가용 시술 또는 치료제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을 통해 환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승인을 시작으로 병원은 향후 2년간(연장 가능) 15명의 완전관해 상태 혈액암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 T세포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치료는 환자의 부담을 고려한 혁신적인 비용 구조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치료 후 5년 이내 재발하지 않을 시 추가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며, 만약 5년 이내 재발 시에는 치료비 전액을 환불해주는 등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실천했다.

전영우 혈액내과 교수(림프종센터장)는 “이번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은 그동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던 희귀 림프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면역세포치료의 첫걸음이 고위험군 환자분들의 장기 생존을 돕는 의미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오랜 기간 병원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연구팀이 쌓아온 임상연구 역량이 실제 환자 치료 단계로 진입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센인 곁을 떠나지 않은 참 의료인 최시룡·채규태

최시룡 교수가 한센인을 진료하고 있는 모습



최시룡 교수



채규태 교수

1965년 10월 25일 명동, 성모병원 한편의 양철판 건물. 한 의사가 보건사회부 초대 만성병과 과장 자리를 내려놓고 가톨릭대 의대 만성병연구소(현, 한센병연구소)의 새 소장으로서 부임하였습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1949) 후 소록도병원에서 한센인의 곁을 지키며 의사 생활을 시작한 최시룡 교수(바로로, 1926~1997)였습니다.**

연구소의 뿌리는 메리놀회 요셉 스위니 신부님이 창립한 천주교 구라회에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성모병원에 구라회 본부가 설치되었고, 산하 나병진료소 실험실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실험실은 의과대학 부속 연구소로 확대되었습니다.

최시룡 교수의 신념은 분명했습니다. 한센인은 사회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라는 것. 그러나 당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963년 법 개정으로 강제 격리가 풀렸지만, 정착촌은 또 다른 격리 시설이 되기 일쑤였고, 한센인을 향한 낙인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어두운 시기, **최시룡 교수는 따가운 시선 탓에 정착촌 밖을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이동 진료반을 결성하여 직접 환자를 찾았습니다.** 진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82년에는 서독 보르스텔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복합화학요법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에게는 젊은 동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1976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채규태 교수(알비노, 1951-)였습니다. 계기는 일요일 미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이야기에는 언제나 병자가 등장했고, 병자 다수는 한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한센인을 치료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젊은 채규태 선생은 최시룡 교수를 찾았습니다.**

역시나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외래와 이동 진료로 바쁜 나날 속에 새로 연구를 시작했지만, 한센군을 다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실험실을 꾸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하에 공간을 얻은 뒤에야 어렵게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채규태 교수는 1990년 9월, 최시룡 교수에 이어 연구소 소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1997년 2월, 최시룡 교수는 희고 록 저술 중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규태 교수가 나타나

기 전, 최시룡 교수는 늘 연구의 대가 끊길까 노심초사하였습니다. 국내 유일 한센병 연구소가 사라진다면, 누가 진료와 연구를 할지 막막한 탓이었습니다. 채규태 교수의 존재 덕에 최시룡 교수는 안도 속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스승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채규태 교수는 더욱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준 한센군의 보존을 위한 누드 마우스 콜로니 설치,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활용한 조기 진단 및 치료 판정 등을 통해 한국 한센병 연구를 국제 무대에 올렸고, 한센인이 겪어 온 사회적 낙인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아낸 반세기 세월은 가톨릭 의료의 지향을 보여줍니다. 소명으로 시작한 일은 더 많은 이를 위한 이동반 진료,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한 실험실 연구, 더 나아가 소외당하는 이의 권리 신장을 위한 사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명, 임상, 연구, 인권이 한데 모이는 곳, 바로 그곳에 CMC 의료의 빛이 있었습니다.**

(글: 인문사회이학과 박승만 교수)

▶ 대학의 명칭은 시절에 따라 성신대학 의학부, 가톨릭대학 의학부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현 공식명칭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또는 가톨릭대 의대로 일괄 표기합니다.



90년의 축적 위에 미래를 열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개원 90주년 기념식 개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지난 5월 7일(목) 본관 4층 강당에서 개원 90주년 기념식을 열고 병원의 역사와 성과를

돌아보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기념식에서는 환자 중심 진료와 헌신을 실천한 교직원들의 노고를 기리는 포상이 진행됐다. '환자 최우선 지향 교원'에 나경선 안과병원장이 선정됐으며, 모범 직원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1936년 한국 가톨릭 의료기관의 모병원으로 출발한 여의도성모병원은 안과병원, 림프종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나프롤임신센터 등 고유한 진료 영역을 확장해 왔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독립병원 체제로 전환해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고 가톨릭 영성을 구현하고 있다.

최근 병원은 진료와 연구 측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뉴스위크 '세계 최고 병원'에 7년 연속 선정됐으며, 안과병원은 국내 기증 각막이식 분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6년에는 혈액암 림프종에서 국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기관으로 승인되며 희귀·고난도 혈액암 치료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올해 경영방침으로 "영성과 혁신으로 여는 미래"를 제시했다. 가장 약한 이들을 먼저 살피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다짐이다.

강원경 병원장은 "여의도성모병원의 90년은 교직원의 헌신이 쌓여 만든 역사"라며 "가장 작고 약한 이들을 먼저 살피는 병원의 정체성을 지키고, 100년의 기도와 90년의 축적 위에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을 실천하며 환자와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병원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백혈병 완치 가로막는 ‘중추신경계 재발’ 위험 요인 규명

15년간 748명 환자 추적, 국내 대규모 데이터 기반 고위험군 규명



이종혁 교수, 윤재호 교수, 이석 교수(왼쪽부터)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혈액내과 이종혁 교수(제1저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윤재호 교수(교신저자), 이대목동병원 혈액내과 이석 교수(공동저자)가 최근 성인 급성림프구백혈병(ALL) 환자의 중추신경계(CNS) 재발 위

험 요인을 규명하고, 고위험군 치료 전략을 제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추신경계 재발은 백혈병 세포가 뇌와 척수로 침투하는 합병증으로, 발생 시 생존율이 크게 떨어지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간 재발 예방 전략은 주로 해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적용돼 국내 환자 특성을 반영한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

연구팀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성인 급성림프구백혈병 환자 748명을 장기 추적 분석한 결과, 전체의 5.1%에서 중추신경계 재발이 발생했다. 그 중 특히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Ph+) 환자의 재발률은 9.7%로 음성 환자보다 약 7배 높았으며, 진단 시 백혈구 수치가 높은 경우 재발 위험이 3배 증가했

다. Ph+이면서 초기 백혈구 수가 높은 고위험군은 5년 내 재발률이 14.4%에 달했으며, 이식 전 미세잔존질환(MRD)이 확인된 경우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중추신경계 침범 이력이나 특정 유형의 급성림프구백혈병 환자 중심의 위험 요인에서 나아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여부와 초기 및 치료 후 종양 부담이 주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혈액암 분야 국제학술지 《Blood Cancer Journal》(IF=11.6)과 《Bone Marrow Transplantation》(IF=5.2)에 게재됐다.



치매 진단 후 비만에서 저체중 감소하면 사망위험 2배 높아



허연 교수

치매 진단 후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허연 교수(제1저자)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남가은 교수(공동교신저자),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한경도 교수(공동교신저자)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치매 환자 3만 7,717명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전후 체질량지수(BMI) 변화와 사망 위험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평균 4년의 추적 관찰 기간 동안 분석 대상자의 21.7%가 사망했으며, 치매 진단 이후 BMI와 사망 위험 사이에는 유의한 역상관 관계가 확인됐다. 정상 체중군과 비교했을 때 진단 후 저체중 상태인 환자는 사망 위험이 1.6배 높았다. 특히 비만 상태였던 환자가 저체중으로 급격히 체중이 감소한 경우에는 사망 위험이 약 2배까지 치솟아, 과도한 체중 감소가 사망의 가장 강력한 요인임이 입증됐다.

반면, 비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및 과체중에서 비만으로 체중이 증가한 환자들은 오히려 사망 위험이 낮아지는 ‘비만의 역설’ 현상이 관찰됐다. 이러한 경향은 치매의 하위 유형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모두에서 확인됐으며, 특히

중년층과 여성 환자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체중 감소가 중증 치매의 특징인 삼킴 장애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나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를 반영하는 지표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렙틴 호르몬의 감소와 항상성 파괴가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 인구를 기반으로 치매 진단 전후의 BMI 변화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대규모로 분석한 첫 연구로, 국제 학술지 《Alzheimer's Research & Therapy》(IF=7.6)에 게재됐다.



대기오염과 코로나19 예후 연관성 규명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호흡기내과 안태준·김서현 교수 연구팀이 대기오염 노출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의 예후를 악화시키는 핵심 변수임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2020년부터 3년간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입원한 중증 코로나19 환자 1,867명을 대상으로 5가지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발생과 사망 위험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단기적으로 일산화탄소(CO) 노출이 0.1ppm 증가할 때 ARDS 발생 위험은 1.18배, 사망 위험은 1.15배 높아졌다. 장기 노출에서는 이산화질소(NO₂)와 미세먼지(PM10)가 ARDS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았던 일산화탄소가 실제 임상 예후와 밀접하게 연관됨을 입증한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이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향후 감염병 대유행 시 대기질 감시 강화와 관련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Respirology》(IF=6.6)에 게재됐다.



뼈 재생 촉진하는 침단 플랫폼 개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홍재택 교수 연구팀(의과대학 의생명과학교실 전홍재 교수)이 뼈 조직 재생을 획기적으로 돕는 새로운 생체재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기존 생체활성 유리(바이오글래스)의 느린 골 전환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분자 물질인 ‘PMB’를 표면에 코팅하는 전략을 세웠다. PMB 코팅은 표면에 인산기를 도입해 칼슘 이온의 흡착을 촉진함으로써, 자연 골 조직과 유사한 수산화탄산아파타이트(HCA)층 형성을 가속화한다.

실험 결과, PMB가 코팅된 바이오글래스에서는 세포 부착을 돕는 ‘파이버넥틴’ 단백질의 흡착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통해 골세포(MG-63)의 부착과 증식이 향상됐으며, 세포 생존 관련 신호전달 체계가 활성화돼 우수한 골 재생 능력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생체재료의 결정화 과정을 조절해 뼈 재생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연구 성과는 국제 학술지 《Tissue Engineering and Regenerative Medicine》(IF=4.1)에 게재됐다.



관심과 이해로 시작되는 진정한 돌봄

간호대학 가족건강간호학과 김수정 교수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인문사회과학 분야 수상자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김수정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와 국제보건 분야의 탁월한 학문적 성과는 물론,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의 도덕적 고뇌와 번아웃 예방을 위한 연구에 앞장서 왔다. 생명이 탄생하는 기쁨의 공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있는 아기들을 매일 지켜보아 했던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로서의 경험에서 시작된 “인간중심돌봄”을 향한 김 교수의 여정이, 어떻게 생명의 신비상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대답을 게재한다.



제20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수상의 의의와 함께 어떤 의미로 상을 받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연구는 의료진이 환자를 인간이 아닌 ‘업무’로 대하게 되는 연결고리를 끊고, ‘인간중심돌봄’을 제공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다들 공감하지만 해결책은 막연했던 현장의 어려움을 탐구해 온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은 제게는 충만하고 감동적인 성취였습니다. 아들의 과제에서 “엄마가 롤모델”이라는 글을 보았을 때 치열했던 시간을 인정받았다고 느낀 것처럼, 수상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하느님께서 알아주신 것 같아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연구를 통해 ‘돌봄’이란 순히 몸을 고쳐주는 서비스를 넘어,

우리 모두의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돌봄’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 존엄을 실천하는 돌봄의 핵심은 <대상에 대한 깊은 관심과 통합적인 이해>입니다. 타인의 상황과 마음을 알려는 노력, 즉 ‘이해하려는 의지’가 존엄한 돌봄의 시작입니다. 제가 신생아중환자실 간호사 대상 교육에서도 많은 시간을 ‘이해’에 할애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돌봄의 대상인 신생아, 보호자인 부모, 현장을 버티는 ‘나’와 동료들 이해해야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잠깐의 날카로운 행동만 보고 서로를 비판하기 쉽지만, 환자와 가족이 처한 맥락을 이해하게 되면 그 행동이 ‘도와달라’는 간절한 외침임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해가 생기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우리가 행하는 돌봄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의료진은 불필요한 상처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고, 환자와 가족에게 비로소 끝까지 존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연구에서는 환아와 그 가족까지 아우르는 ‘가족중심 돌봄’을 강조하셨는데, 이를 화두로 삼으신 배경이 궁금합니다.

과거 간호사 시절 스스로 아이를 낳고 기르며 ‘부모의 마음’으로 돌이켜보고, 깨달은 것들이 이유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볼 때는 작아 보여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하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었는지, 나중에야 안 거죠. 일례로, 부족한 양의 모유를 유축해 오셔서 환아에게 달라고 할 때, 아기가 장이 좋지 않아 소화도 시킬 수 없고 모유 양도 적어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부모가 되고 나니 그게 얼마나 크고 절박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노력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환아의 가족들을 불평만 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아픈 아이를 돌보기 위한 팀원으로 인식하고 ‘함께’ 환자중심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 부모님들도 함께 돌보고 격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환자만이 아닌 그 가족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돌봄 단위로 바라보는 ‘가족중심 돌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의 임종으로 겪는 정서적 고통을 덜어주려면, 병원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의료진들은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정확한 판단과 실행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의 반복은 의료진이 심리, 신체, 사회, 영적인 부담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개개인의 의료진이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험과 극복을 통해,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개인의 회복탄력성에만 기대기 힘든 부분이 환자의 임종입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개인의 결함으로 다루지 않는 것’, 그리고 기관과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아직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기에,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의료진이 윤리적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만이라도 기관과 사회가 돕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교수님의 연구가 실제 병원 현장에서 어떤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낼지 바라시나요.

사람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해’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수치로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해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들이 올바른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 간다는 것을 기관의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가톨릭 기관으로서 이해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며 우리 기관만의 리더십이 실현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의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일은 돌봄의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 분들이 환자 곁에서 온전히 자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를 더욱 기대해주시면 좋겠고,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홀로 살기 위해 땀뼉 첫걸음, 이제는 ‘함께’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팀 박근수 선임

달리기는 정직한 운동이다. 자신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만큼 결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홀로 새벽 공기를 맞으며 달렸지만, 이제는 병원 동료들과 ‘함께’ 달리는 즐거움에 빠져 일 년에 10개 이상의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는 교직원이 있다..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팀 박근수 선임방사선사를 만나 그의 러닝 스토리를 들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현재 맡고 계신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팀 박근수입니다. 2004년에 입사해 올해로 23년 차 방사선사로, 현재는 CT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러닝과 마라톤을 시작하며 건강을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달리기 결심하셨을 당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던 무렵, 어느 날부터 가슴 통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보니 심장으로 가는 핵심 길목의 혈관이 좁아져 있었고, 심장 혈관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며 수축하는 상태였습니다.

이후 진료 때 가볍고 꾸준한 운동을 권유받아 저녁 식사 후 걷기부터 시작했지만, 상황이 좋아진다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땀을 흠뻑 흘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감추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는 월에 몇 번,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달리고 계신가요?

요즘은 대회를 앞두고 하루 두 번씩 땀 정도로 매일 달리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라 아침저녁으로 시간을 조절해가며 보통 한 번에 10km 이상씩 거리와 속도에 변화를 주며 훈련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병원 러닝크루 ‘SVRC’ 회원들과 함께 뛰고, 주말에도 한 번씩 장거리 러닝을 하거나 더운 날 산을 걷는 트레일 러닝도 즐깁니다. 일 년에 10개 이상, 올해만 풀코스 8곳을 포함해 봄-가을을 마라톤 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습니다



러닝을 하며 느낀 신체적, 심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러닝을 하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뛰어도 힘들었지만, 새벽 러닝 후 출근할 때의 날아갈 듯 가벼운 느낌에 매료됐습니다. 몸은 피곤해도 발걸음이 가벼워질 때 ‘아,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러닝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정직한 운동입니다. 성장하니까 재미있고, 재미



있어서 더 성장하는 선순환이 달리기를 지속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나 갈등에서 오는 우울감도 달리고 나면 저 멀리 날아갑니다.



달리기를 이어오면서 슬럼프나 부상 등 그만두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러닝에 빠졌을 무렵 출근길이 고통스러울 만큼 심한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달리기를 포기할 수 없어 무릎 보호대와 스포츠 테이핑을 하고 뛰었습니다. ‘이것조차 할 수 없다면 다음엔 무엇을 하겠나’ 하는 오기가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 두 달간 러닝을 쉬며 문제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유튜브, 책을 보며 자세를 교정하고 주법을 바꿨습니다. 매일 달리는 대신 충분히 휴식하고 근력 운동도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부딪히며 고쳐나가다 보니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빈센트병원 러닝크루 ‘SVRC’에서 동료들과 함께 달리고 계십니다. 함께 달리는 것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성장이라는 재미도 어느 순간 한계가 왔고, 함께 달릴 동반자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주변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생겼는데, 마라톤 대회를 함께 뛰며 ‘함께하는 달리기’의 재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거리를 뛰어도 덜 힘들고 시간도 금방 갑니다. 저희는 이른



단체로 러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나oun영 팀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시티런을 할 때는 자동차나 보행자를 피해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럿이 땀 때는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선두에서 보행자나 위험 요소를 체크하며 이끄는 ‘그룹장’이 필요하고, 후미에서는 뒤쳐지는 회원의 체력과 속도를 살피며 페이스를 조절해 함께 달리도록 돕는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러닝을 해보고 싶지만 주저하고 있는 교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고 문밖을 나서는 그 첫 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주변에 항상 ‘내가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러닝은 노력한 만큼 보답하는 정직한 운동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달리는 팀과 크루 동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돌아보면 힘든 순간에도, 의욕이 저하되던 순간에도, 뜨거운 태양 아래나 차가운 겨울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였기에 매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포기하고 싶던 언덕에서도 서로가 있었기에 웃으며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에너지를 원동력 삼아,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길도 서로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더 멀리, 더 즐겁게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함께 뛰어주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빈센트병원 러닝 크루 SVRC’

가톨릭중앙의료원, 국내 의료기관

윤리적인 운용 기반의 CMC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와 함께 'AI Transformation(전환)'을 선언하며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의료 실현하기 위한 보조적 도구로 규정하고 환자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올바른 활용 기준을 마련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이로운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자 안전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반영한 AI 의료 거버넌스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윤리강령은 5월 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 아홀에서 개최된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심포지엄'에서 공식 발표됐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동남을),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나성욱 NIA 지능형네트워크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학교법인 가톨릭

의료 인공지능 운용에 대한 CMC 윤리 강령

서문

의료 인공지능은 치유를 돕는 혁신적 도구인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닌다. 이에 한국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의료 인공지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오직 생명 증진과 환자의 전인적 돌봄을 위해서만 선용할 것을 선언하며, 본 윤리 강령을 제정한다.

본문

CMC는 의료 인공지능을 운용할 때,

〈핵심 가치와 지향점 (Values & Mission)〉

1. 생명 존중 | 생명 존중과 환자 안전의 가치를 보호하고 실현하도록 운용한다.
2. 전인적 돌봄 | 환자를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돌보도록 운용한다.
3. 공정성 | 환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환자를 공정하게 대우한다.

〈인간의 중심성과 통제 (Human-Centricity & Control)〉

4. 보조성 | 인공지능이 환자-의료진 관계를 대체하지 아니하고 증진시키도록 운용한다.
5. 인간의 책임성 | 진료와 돌봄의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의료적 조언을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의료진이 검토한다.
6. 관리 감독 | 인공지능이 언제나 의료진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운용한다.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 (Trustworthiness & Data Ethics)〉

7. 설명 가능성 | 인공지능이 의료적 조언과 함께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도록 운용한다.
8. 보안 및 프라이버시 |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며,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9. 정보활용 | 환자 정보 이용 시 환자의 권리와 자율성을 존중한다.

〈사회 정의와 책무 (Social Justice & Responsibility)〉

10. 생태 보호 | 에너지절약과 생태 보호를 고려하며 운용한다.
11. 공정한 이익 환원 | 인공지능 개발에 기여한 데이터와 지식을 공동선을 위해 활용하며, 사회와 환자에게 이익을 환원한다.
12. 국제 협력과 거버넌스 | 인류 전체의 공동선을 위해 국가, 국제기구, 의료기관, 산업계, 시민사회와 협력한다.



최초로 의료 AI 윤리강령 선포

CMC 의료 거버넌스 구축

리학원 상임이사 이경상 주교, 가톨릭대학교 총장 최준규 신부,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대진 정보융합진흥원장 등 주요 내·외빈이 자리했다.

주한 교황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는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선도적이고 뜻깊은 노력을 펼친 가톨릭중앙의료원”이라며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돌보는 깊은 차원을 대신할 수 없다. 중요한 과제는 인공지능을 인간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본질을 지키고 길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의료의 본질은 생명과 생명이 서로를 알아보고 존중하는 인간관계로, 고통 앞에서 동행할 수 없는 기계의 자리는 반드시 인간의 몫이다”며 “이번 윤리강령은 기술이 우리 인간의 가치를 앞서 건지 않도록 의료 공동체 스스로 방향을 정하는 선택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용기있는 약속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이날 선포된 의료 AI 윤리강령은 가톨릭중앙의

료원의 핵심가치와 지향점(Values & Missions)을 포함해 ▲인간의 중심성과 통제(Human-Centricity & Control)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Trustworthiness & Data Ethics) ▲사회 정의와 책무(Social Justice & Responsibility)까지 총 4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포함해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그중에서 인공지능이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증진시키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과, 모든 인공지능은 인간의 관리·감독 아래에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핵심 항목으로 제시했다.

이번 윤리강령은 로마 교황청의 신앙교리부와 문학교육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거쳐 2025년 1월 28일에 발표한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담은 윤리 지침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인간 존엄성 침해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민창기 가톨릭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올해 설립 90주년을 맞이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언제나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먼저 찾아가 환자의 손을 잡고 온기를 지켜왔다”며 “이번 윤리강령은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약속인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가치를 실천하고 증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교황 주한대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에게
윤리 강령을 전달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심포지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5월 7일, 가톨릭대학교 정보융합진흥원 및 생명대학원과 공동으로 'CMC ETHICAL AI Transformation for Human Dignity'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행사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1층 마리아홀에서 진행됐다. 심포지엄은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의료 AI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 방향과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CMC AI 전환을 위한 AI 윤리 강령 선포

정순택 대주교 축사,
조반니 가스파리 대주교 축사 등

2부



기초 강연

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 강연
- DIGITAL HEALTHCARE 2026
: AGE OF GENERATIVE AI

3부



병원 AI 사례와 방향성

: NHG HEALTH ERIC WONG
교수, NIA 지능형네트워크단 나성
욱 단장 등 발표 진행

4부



Physical AI의 발전과 윤리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채승아 상무,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
홍성후 교수 등
발표 및 PANEL DISCUSSION 진행

닥터의 진료현장

성대결절부터 신경학적 요인까지, 음성장애의 원인별 맞춤 치료법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현범 교수

음성장애(Voice disorder)는 단순히 '목소리가 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음성을 생성하는 데 문제가 생겨 목소리가 변형되거나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목소리가 거칠어진 쉼 상태로 나오거나, 음성이 너무 약하거나 강하게 들리는 경우, 또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거칠어지는 등의 증상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장애는 단순한 일시적 이상 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의학적인 평가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음성장애의 다양한 원인

음성장애는 크게 기능적, 기질적, 신경학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기능적 음성장애는 잘못된 발성 습관이나 과도한 목소리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표적인 예로 성대결절과 성대용종이 있습니다. 기질적 음성장애는 성대 또는 후두의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후두암, 성대마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경학적 음성장애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해 성대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로, 파킨슨병이나 뇌졸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음성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

음성장애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소리가 거칠고 쉼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쉼 목소리 (Hoarseness) ▲평소보다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짐 ▲고음 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 변화 ▲조금만 말해도 목이 쉽게 피로 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목소리 피로 ▲목이 답답하거나 무엇 인가 걸린 듯한 느낌이 지속되는 목의 이물감 ▲말하는 중간 에 소리가 끊김 ▲목소리가 힘없이 나오는 소리 끊김 ▲말을 할 때 목이 아프거나 불편한 통증 ▲목소리가 떨리거나 일정 하지 않은 증상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할 증상은

일시적인 쉼 목소리는 감기나 과도한 발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됩니다. 그러나 ▲쉼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점점 악화되는 목소리 ▲말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경우 ▲삼킬 때 통증이 있 거나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경우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 지는 경우 ▲특정 음역대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목에 혹이 만 져지는 경우 ▲후두 부위에서 압박감이 느껴지는 경우 ▲기 침할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등은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검 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성장애도 수술치료를 하나요?

음성장애의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르며, 크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의 대표적

인 방법은 음성치료입니다. 음성치료는 음성치료사의 지도 아래 성대에 무리를 주지 않는 발성법을 익히는 과정으로, 비 유하자면 성대 근육을 위한 퍼스널 트레이닝(PT)과 같습니다. 운동 선수가 재활 훈련을 하듯 잘못된 발성 습관을 교정 하고 성대 주변 근육을 체계적으로 단련하며, 식단 관리처럼 성대 건강에 유익한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해 치료 효과를 높 입니다. 다른 방법인 약물 치료의 경우, 성대 염증이 있을 때 항염증제나 위식도 역류를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입니다.

이렇게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시도한 뒤에도 증상이 지속 되거나,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미세후두수술이라는 내시경을 통해 성대 병변을 제 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대마비나 연축성 발성장애 가 있는 경우 보톡스 주사 치료나 성대주입술 등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대전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김현범 교수



진료 분야 두경부암,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연하장애, 편도질환, 갑상선질환, 소아 이비인후과
진료 시간 [오전] 수, 목 [오후] 화

2026학년도 화이트코트 세리머니 ·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의과대학



간호대학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4월 24일 2026학년도 화이트코트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학부모가 자녀에게 흰 가운을 입혀주고 실습 명찰을 달아주었으며, 교수진은 청 진기를 걸어주며 제자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참가 학생들은 예비 의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갖춰야 할 올바른 의사상을 확립하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환자를 사랑하는 전인 적 치료를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인술을 평생 연마하겠다고 다짐했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은 지난 5월 14일 3학년 학생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의 손을 축복하는 예식과 나이팅게일 휘장 수여가 진행됐다. 선서자들은 촛불 예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 해, 어떤 차별이나 비윤리적 행위 없이 생명윤리와 전인 간호 역량을 갖춘 간호사로 성장할 것을 선언하며 가족과 교직원들의 축하 속에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서울성모병원 보건복지부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선정

연구 초기부터 규제 전문가 참여...
‘기술→임상→사업화’ 속도 높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기초·중개연구 성과가 실제 임상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성과 중심 연구체계를 구축하는 국가 전략 과제다. 서울

성모병원은 홍성후 융합·협력 연구부장(로봇수술센터장, 비뇨의학과)을 중심으로 ‘C-LINK R&D 사업’을 추진, 전주기 의료기술 개발 가속화 전략을 인정받았다.

병원은 이미 옴니버스파크를 통한 산학연병 융복합 클러스터와 국내 대학병원 최초의 세포생산실 등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혈액·면역질환 ▲디지털 임상 ▲첨단융합바이오 ▲정밀재생의료 등 4대 특화 R&D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경구용 신약 후보물질 도출, 난청 재활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 나노융합 세포·유전자치료제 및 범용 연골세포치료제 개발 등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차별화된 전략으로 AI 기반 통합 연구성과 관리 플랫폼인 ‘CMC-LINK SOAR’를 도입한다. 연구 마일스톤 실시간 추적과 기술성숙도 관리를 지능화하고, 연구 초기 단계부터 규제 전문가를 참여시켜 임상시험 허가 가능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상용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은 자체연구비 28억 원을 투자하고 33명의



핵심 연구원을 확보하며 강력한 사업 의지를 보였다.

스탠포드 의과대학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도 병행한다. 사업 1단계에서는 플랫폼별 개념검증(PoC) 3건 이상을 달성하고, 2단계에서는 의료현장 적용 및 기술이전 등 실질적인 실용화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책임자 홍성후 교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구성과의 임상 전환과 기술사업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겨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서울성모병원을 글로벌 수준의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시키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성모병원 고난도 ‘타비(TAVI) 시술’ 성공적 도입

경기 북부 중증 심혈관 치료 역량 입증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순환기내과 김찬준·임성민 교수팀은 최근 고령 및 고위험군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를 위한 최첨단 치료법인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입술(TAVI, 이하 타비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며 본격적인 고난도 심혈관 진료의 시대를 열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판막이 굳어 혈액 흐름이 막히는 치명적 질환으로, 적기 치료가 없으면 2년 내 사망률이 50%에 달한다. 하지만 고령 환자는 개흉 수술에 따른 신체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타비 시술은 가슴 절개 없이 허벅지 동맥을 통해 카테터로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비수술적 요법으로, 회복과 일상 복귀가 매우 빠르다는 강점이 있다.

이번 시술 성공은 순환기내과를 필두로 심장혈관흉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여한 ‘다학제 협진팀’의 긴밀한 공조 덕분에 가능했다. 고도의 정밀 분석과 숙련된 술기, 돌발 상황 대응 체계가 필수적인 만큼,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성과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최상위 의료 인프라와 전문 대응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의정부성모병원 ‘각막내피층판이식술(DSAEK)’ 성공

최소 절개로 시력 회복 빠르고 거부반응 낮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고난도 각막이식술인 ‘데스메막박리 각막내피층판이식술(DSAEK)’에 성공하며 지역 내 안과 진료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수술은 안내렌즈 삽입술 후 발생한 각막내피 기능부전으로 고통받던 40대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안과 김다란 교수의 집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수술은, 환자가 경과 관찰 1주일 만에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데스메막박리 각막내피층판이식술(DSAEK)’은 손상된 각막 내피층만을 선택적으로 교체하는 고난도 술기다. 각막 전체를 교체하는 ‘전층 각막이식술’에 비해 절개창이 작고 봉합이 거의 필요 없다. 때문에 난시 발생이 적고 시력 회복이 월등히 빠른 장점이 있다. 이식하는 부위가 적어 이식 거부 반응의 위험을 낮춰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수술 방식은 병든 내피세포를 제거한 후 공여자의 각막 내피층을 삽입하고 공기 방울로 고정하는 정교한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고난도 각막이식 수술을 위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지역 환자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다란 교수



은평성모병원 국내 최초 사양 ‘트루빔 4.1’ 본격 가동

절개·통증·표식 없는 ‘3無’ 치료 구현...
환자 삶의 질과 안전 동시 확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암센터가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 4.1(TrueBeam 4.1)’을 도입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에 도입된 ‘트루빔 4.1’은 차세대 지능형 아크 치료 기

인 ‘래피드아크 다이내믹’과 초고해상도 영상유도 시스템인 ‘하이퍼사이트’를 국내 최초로 동시에 탑재했다. 이를 통해 종양의 입체적 모양에 맞춘 정밀 조사가 가능해져 정상 조직의 손상은 줄이고 치료 효율은 높였다. 특히 하이퍼사이트 시스템은 CT 스캔 시간을 단축하고 방사선량을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고화질 영상을 제공해 치료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환자의 편의성도 대폭 강화됐다. 함께 도입된 ‘표면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SGRT)’은 3대의 고해상도 카메라로 환자의 움직임을 1mm 이하 단위까지 감지한다. 덕분에 피부에 별도의 표식을 할 필요가 없어 환자들은 치료 중에도 자유롭게 씻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신규 장비 도입과 더불어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도 완료해 총 2대의 최첨단 방사선 치료기를 가동한다. 이로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암 치료의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은평성모병원은 앞으로도 수도권 서북부를 대표하는 암 치료 거점 병원으로서 첨단 치료 인프라와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CMC 단신

의과대학

'의사, 소명, 길' 발표회 성료



의과대학은 최근 2026학년도 옴니버스 캡스톤 프로그램 '의사, 소명, 길' 발표회를 마쳤다. 이번 행사는 AI와 임상의학, 헬스케어 등 최신 트렌드부터 의료 윤리까지 폭넓게 다뤘으며, 학생들이 의사로서의 소명과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전문가와의 교류를 통해 미래 의료 현장에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고 연구 및 공공의료로 시야를 넓혔다.

서울성모병원

로봇수술 2만례 달성... K-메디컬 로봇수술 선도 입증



서울성모병원이 로봇수술 2만례를 달성하며 국내를 넘어 로봇수술을 선도하는 K-메디컬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병원은 지난 2022년 국내 최단 기간 내 로봇수술 1만례를 달성했으며, 이번 2만례 달성은 고난도 수술 분야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임상 경험과 환자 중심의 정밀의료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성과로 평가된다.

부천성모병원

몽골 의료진 초청 연수 성료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하고 연수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경기도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몽골 신경외과 의사 2명을 대상으로 했다. 연수 기간 동안 의료진들은 부천성모병원의 선진 의료시스템과 신경외과 분야의 진료 및 수술 과정을 참관하며 다양한 임상 경험과 의료기술을 익혔다. 또한 의료진 간 학술 교류를 통해 실제 진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카본 클린(잔반 제로) 급식소' 운영 시작



부천성모병원이 원내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카본 클린(잔반 제로) 급식소'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병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생활 실천 문화 정착에 힘쓸 예정이다.

은평성모병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은평성모병원이 최근 CMC 산하 병원 중 최초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교직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 교직원이 대회의 역사와 의미를 공유하고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 준비 마음가짐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이날 연자로 나선 이영제 신부는 '희망과 증거'를 주제로 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교직원이 만드는 AI 혁신

은평성모병원은 스마트시헬스케어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직원



의시 관련 아이디어를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전 교직원 대상 공모전을 시행한 것이 그 예로, 총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또한 이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를 업무에 적용하는 단기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는 'AI Beta Crew'를 모집하며, 6월부터 8월까지 집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성빈센트병원

'골반건강재활센터' 신설

성빈센트병원이 골반저 기능장애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치료를 위해 골반건강재활센터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대장항문외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가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와 수술은 물론, 골반저 재활치료와 정신건강 관리까지 연계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공신장실 재단장 오픈



성빈센트병원 인공신장실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리모델링은 투석 환자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함이었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인공신장실은 31병상 규모로, 최신 혈액투석 장비와 안전하고 편안한 투석 환경을 갖추게 됐다. 또한 신장내과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동정

* 기관별 / 가나다 순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취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정혜선 교수가 최근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정혜선 교수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 전문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2025)으로 활동하는 등 30년간 국내 안전 및 보건 분야에 기여한 전문가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첫 여성 임원직을 맡았다. 정 교수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을 통합해 실제로 효과있는 산재 예방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K-척추내시경' 글로벌 확산 국책과제 선정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김진성 교수팀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화장품사업단이 주관하는 '2026년 해외 의학회 연계 KOL(Key Opinion Leader) 확산 사업' 연

구과제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 신뢰도 제고와 해외 의료진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하며, 총 2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신설 국책 사업이다.

초등학교 교직원 대상 정신건강 교육 실시



부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하연 교수가 최근 부천남초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들의 학생 이해와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김 교수는 강의를 통해 ADHD와 품행장애 학생들의 행동 특성과 지도 시 유의사항,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 방법을 소개하며 교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차기 회장 선출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가 차기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회장으로서 선출됐다. 임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1년이다. 임상현 교수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질환 예방 및 치료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진료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고혈압과 지질대사 관리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심혈관질환 예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PASTB 2028 학술대회

국내 유치 및 조직위원장 선임



성빈센트병원 정형외과 정진영 교수가 2028년 아시아태평양조직은행학회(APASTB) 학술대회의 국내 개최를 유치하고, 조직위원장에 선임됐다. 정진영 교수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APASTB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

재 세계조직은행연합(WUTBA)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활동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인체 조직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글로벌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바일 후원
바로가기



포스텍-가톨릭대

의사과학자·의과학자 양성 K-MediST 사업단 출범식 개최

교육 · 연구 · 사업화를 아우르는
융합형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

포스텍-가톨릭대 의생명공학연구원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K-MediST 사업단' 출범식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의대와 이공계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의사과학자 및 의과학자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단은 김완옥 의생명공학연구원장(서울성모병원 류

마티스내과 교수)이 주관하고, 김철홍 부원장(포스텍 IT 융합공학과 교수)이 공동 연구책임자를 맡아 'K-MediST HUB: MediCaPo'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5년간 진행되며, 정부로부터 총 16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의 핵심 목표는 세계적인 바이오 연구 거점인 하버드-MIT 브로드 연구소(Broad Institute)를 모델로 한 한국형 의공학 융합 플랫폼 구축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도입한 '공동학위 제도'를 적극 활용해 융합형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과 연구,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강화한다.

또한 213명 규모의 신규 공동연구소인 'PoCa Village for



Capo'를 조성해 신진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협업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투자 유치로 이어지고, 그 수익이 다시 인재 양성에 투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성빈센트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공모'에 최종 선정돼 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선정은 소아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내 중고위험군 소아환자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권의 핵심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빈센트병원은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독립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 소아응급전담 전문의 4명과 간호사 15명을 중심으로 24시간 진료체계를 운영하며, 향후 전문의를 6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세부분과 및 타 진료과의 유기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해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을 한층 고도화한다.

센터 내에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중증응급환자 구역, 음압격리병상 등 총 8병상의 전용 진료 공간이 마련됐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전용 입원병실(6병상)과 전용 중환자실(2병상)을 별도로 운영해 응급 진료부터 입원, 중환자 치료까지 단절 없는 연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병원 측은 이번 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증가하는 소아청소년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전성모병원

김다영 간호사, 열차 안에서 심폐소생술로 시민 구해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환자 살피는
간호사 되기 위해 노력할 것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열차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승객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시행해 생명을 지킨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성모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서 근무하는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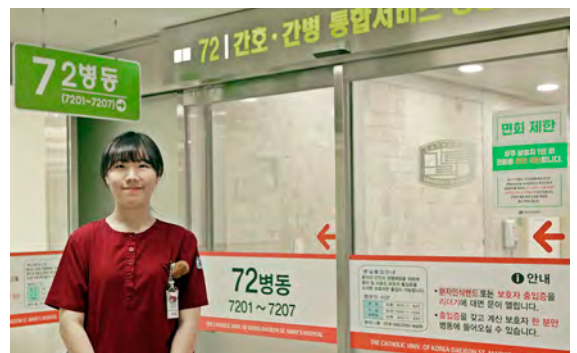
다영 간호사는 지난 5월 2일 밤 11시 수원에서 대전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조치원역을 지날 무렵 환자 발생을 알리는 승무원의 안내방송을 들었다.

김 간호사는 탑승 칸이 달랐지만 열차 칸을 이동해 한달음에 달려갔고, 현장에서는 승무원이 60대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CRP)을 시도하고 있었다.

김 간호사는 신분을 밝히고 환자가 쓰러진 시점, 의식·맥박·안구 반응 등 신체 상태, 동승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동제세동기(AED)를 활용해 10여분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다행히 남성은 호흡과 의식을 되찾았다.

승무원과 시민들의 도움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큰 도움이 됐다. 환자가 쓰러지던 상황에 대한 설명과 구급대 연락, 열차가 지나가는 장소 및 다음 정거장까지 이동 시간 등의 정보를 함께 공유했다.

이후 김 간호사는 동행자가 없던 환자를 부축해 대전역에 함께 내린 후 119 구급대에 안전하게 인계 후 귀가했다.



김다영 간호사는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는 순간 안도감이 들면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자부심도 들었다"며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환자를 살피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섯쌍둥이의 기적이 시작된 곳, ‘산모와 아기’의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서울성모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 본격 가동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진료 거점 역할 강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최근 ‘권역 모자의료센터’를 개소했다.

서울성모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중증 질환 신생아 치료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임신부터 출산 이후 산후 관리, 신생아 집중치료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진료를 제공하는 권역 모자의료센터로 지난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신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원은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다학제 협진 체계를 구축해 산부인과와 선천성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출산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환자 중심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산부인과 모체태아의학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신생아분과 전문의를 비롯해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협진하는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출산과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 진료 환경으로 입원 산모 중 고위험 산모가 약 60% 이상이다. 또한 가톨릭 영성에 기반해 ‘생명의 고귀한 탄생’을 지원하는 진료 문화를 구축하고, 산후 출혈, 자간전증, 조기진통, 다태아 임신 등 다양한 고위험 임신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신생아 전담 간호팀과 함께 초극소 미숙아 클리닉, 선천심장 클리닉, 소아외과 클리닉 등 특수 진료를 운영하며 소아심장, 소아외과, 소아안과, 소아이비인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임상유전 등 다양한 분야가 협력하는 맞춤형 치료 체계를 갖췄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병원은 세계적으로 드문 자연임신 다섯쌍둥이 분만과 22주 미숙아를 포함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산모들의 안전한 분만과 미숙아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초극소 미숙아 치료까지 가능한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전주기 치료를 제공하며, 향후에는 퇴원 후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권역 모자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모병원 권역 모자의료센터장 박인양 교수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고령 산모 증가로 고위험 임신과 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문적인 통합 치료 시스템을 바탕으로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내1호

림프종완치를 향한

K-재생의료

새로운문을열다



보건복지부 승인 희귀 림프종 치료를 위한 국내 최초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THE CATHOLIC UNIV. OF KOREA YEUIDO ST. MARY'S HOSPITAL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림프종센터 전영우 교수(맨우측)가 CAR-T 주입 및 환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전화예약
1661-7500
평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오후 12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ujb.or.kr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신규 간호사 '돌잔치 및 손 축복식' 개최

입사 1년 맞이한 신규 간호사들 격려... 끈끈한 동료애와 소속감 고취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손' 의미 되새겨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지난 19일 국제 간호사의 날 5월 12일을 기념해, 입사 1년을 맞이한 신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간호사 돌잔치 및 손 축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입사한 신규 간호사 97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지난 1년간 낯선 병원 환경에 훌륭히 적응하며 환자 간호에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간호사로서의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손 축복식'은 신규 간호사들에게 그들의 손이 단순한 노동의 손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치유의 손'임을 상기시키는 종교적·인간적 예식이다. 따뜻한 손길로 환자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 고통까지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를 담았다.



AI 기반 안전·정확한 CT 장비 도입

진료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성 강화

✓ 특징점

- **1-Beat Cardiac Imaging**
단 한 번의 심장 박동만으로 심장 CT 촬영이 가능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심장 검사 지원
- **512채널 초고해상도 영상**
미세 병변 및 작은 혈관 구조까지 선명하게 구현하여
정밀 진단 가능
- **AI 기반 저선량 영상 기술(TrueFidelity™)**
낮은 방사선량에서도 고품질 영상을 제공해 환자의
검사 부담 감소
- **초고속 검사 시스템**
빠른 촬영 속도로 검사 시간과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환자 편의성 향상
- **자동 환자 포지셔닝 기능**
AI 기반 자동 위치 인식으로 최적의 촬영 환경 제공 및
검사 정확도 향상
- **움직임 보정(Motion Correction) 기술**
부정맥 환자나 움직임이 많은 환자에서도 안정적이고
선명한 영상 획득 가능

✓ 주요 적용 분야

- 심장·관상동맥 CT 검사
- 뇌혈관 및 신경계 정밀 진단
- 폐·흉부 질환 검사
- 복부·간·췌장 등 장기 검사
- 응급·외상환자 신속 진단
- 암 및 미세 병변 조기 발견 검사





전화예약
1811-7755
평 일 : 오전 8시~오후 5시
토요일 : 오전 8시~12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표준화된 진료와 연구



보건복지부인증



AAHRPP인증획득

www.cmcep.or.kr

2026년 6월 트루빔 2호기 운영 시작

최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트루빔(TrueBeam) 4.1



현존 최고
사양 장비

**차세대 지능형
아크 치료 기술**
(RapidArc Dynamic)

정상 조직 노출 최소화
종양만 세밀하게 타격하는
고효율 방사선 치료

**고해상도
영상 시스템**
(HyperSight)

고해상도 영상 기반
종양 모양에 맞춘
안전한 방사선 치료

**무표식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SGRT)

신체 표식 없는
실시간 움직임 추적
정밀 방사선 치료